

“해남 송호해수욕장 모래유실 인근 방파제 등 구조물 때문”

목포대 연구소 조사…郡, 하천 정비 등 대책 마련 착수

해남 송호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은 인근에 있는 방파제 등 구조물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는 최근 해남군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송호해수욕장 모래유실 실태 조사 결과 “인근 양식장 구조물과 해안 용벽 및 방파제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송호해수욕장 남서해안 갈산에 위치한 축제식 양식장의 축조물을 비롯해 해안 용벽과 방파제가 파도 유입을 막아 모래 유실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비사업도 모래 유입량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대 갯벌연구소 용역팀은 “송호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래의 유입 통로를 만들어 주고 해안 침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해수욕장은 지난 9개월간 2천

326m의 모래가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매년 12월부터 2개 월 동안 집중 유실되고 여름철인 7·8월 두 달간 유입되고 있으나 유입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대 갯벌연구소 용역팀은 “송호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래의 유입 통로를 만들어 주고 해안 침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남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천 정비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모래 유실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아기 울음소리
되찾은 담양군
산부인과 문 열어

담양군 유일의 산부인과 전문의원이 문을 열었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여성의원이 담양읍 천변리에 개원해 지난달 3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산부인과 병원은 여성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 특성에 출산을 감소. 병원의 대형화 등이 겹쳐면서 군 지역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담양군의 경우 조산소는 1991년 7월 폐업했으며 산부인과 역시 종합병원인 담양 사랑병원이 2003년 8월부터 2년간 운영하다 폐쇄한 바 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영광 홍농에 대형 조선소

(주)TKS 557억 투자 연말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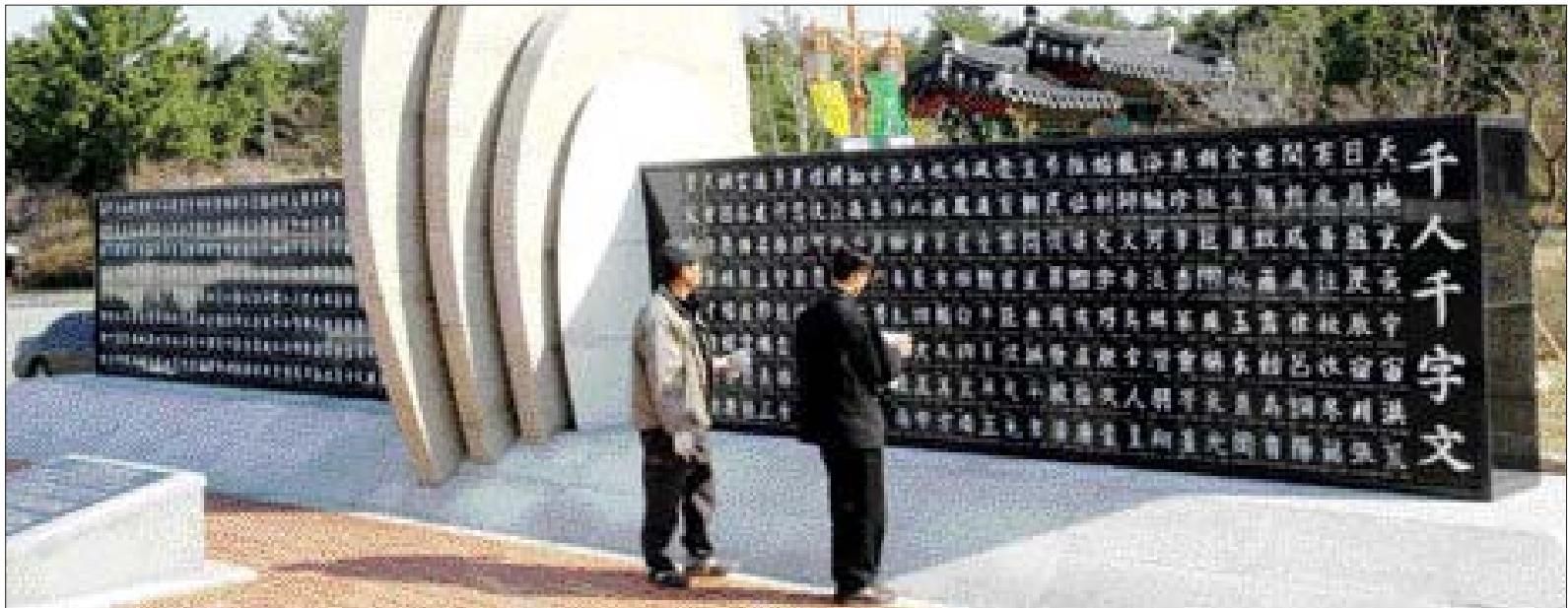
영광 홍농에 대형 조선소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4일 “영광군 홍농읍 조선소 건립 현장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신창섭 영광군수 권한대행, 선박 제조업체인 (주)TKS(Top of Korea Ship building) 고경주 대표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TKS는 영광군 홍농을 일대 6만5천500㎡ 부지에 557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연간 3만5천t급 선박 12척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 영광군과 협의해 인근 부지 66만1천㎡에 800억원이 투자되는 연관 산업단지를 조성해 블록공장 및 부품 산업을 유통할 계획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왕인박사 유적지 ‘천인천자문’ 5일 개막되는 ‘2008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앞두고 왕인박사 유적지 영월관 앞에 ‘왕인 상징조형물 천인천자문’이 설치됐다. 천인천자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국내외 유명인사 1천명이 직접 한자씩 쓴 휘호로 제작됐다. <영암군 제공>

나주배, 성장촉진제 “NO”

市, 추방 원년 선포…명품배 생산 결의

나주시가 배를 빨리 수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장촉진제인 지베렐린(Gibberellin) 감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나주시는 지난 2일 배농협에서 배재배 농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촉진제 추방 원년 선포식을 갖고 세계적 명품배 생산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시와 협약을 갖고 ▲성장촉진제 감량운동 동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나주농업 위상 제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세계적 명품배 생산 등을 결의했다.

나주시가 선포식까지 열게 된 것은 성장촉진제가 명품배 생산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예년에 비해 열흘 이상 빨라 성장촉진제 사용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나주시는 전체 배 생산량 7만5천t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여t이 주석 명절 출하시기를 맞추기 위해 성장 촉진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촉진제는 인체에 무해(無害)하고 수확시기를 일주일 가량 앞당기는 장점이 있으나 저장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과육(果肉)이 푸석푸석하고 물러지는 이른바 ‘스판지’ 현상을 초래, 품질 하락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시는 각 농가가 성장 촉진제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만큼 올해는 사용비율을 30% 이하로 억제하기로 했다.

나주지역은 2천820ha에서 연간 7만5천t을 생산, 전국 배 생산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고향의 맛과 훈훈한 정 느껴집니다”

장흥군 항우 200명에

봄나물 포장해 전달

“고향 들녘에서 갓 캐낸 봄나물에 서 훈훈한 정이 느껴집니다”

장흥군이 최근 출향 항우 200명에게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봄나물

을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은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국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 근로사업단을 구성, 지난달 하순부터 쑥과 불미나리, 달래, 냉이 등 봄나물을 채취해 위생 포장을 거쳐 항우들에게 택배로 전달했다.

/장흥=김용기자 kykim@

어업인들이 ‘전복주식회사’ 설립

완도서 1천여명 참여

올해 안에 어업인들이 주체가 된 ‘전복주식회사’가 설립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전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완도지역 전복 양식 어업인을 중심으로 전복주식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전복주식회사가 설립되면 과잉 생산을 예방하고 생산부터 유통, 가공,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업화가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3일 완도군 금일읍 공공 도서관에서 전복양식 어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주식회사 설립을 개최했다.

/채희종기자 chae@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 부터 (6.7.8월에 한정)

제작 기간 15일~45일, 예약 10%, 시공 45일, 무기한보증

●예약전화 022-228-8000 ●예약문의 083-1228-4711-2

50% off SALE



이각구 전문점



E-Supporter 어학원

http://www.e-supporter.com/the-color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이어판에 비해 가격 최저! 효과 최고!

E-Supporter

연수비율

영어공부 학기 좋은 이유	연수비율	기본비율
기초학습 활용 가능 서비스	95%	95%
기초학습 활용 가능 서비스	95%	95%
기초학습 활용 가능 서비스	95%	95%
기초학습 활용 가능 서비스	95%	95%

필리핀 어학연수의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연수는 고정비 **한수익률** 확장형

●기본비율 대체 대체
●기본비율 대체 대체 대체
●기본비율 대체 대체 대체
●기본비율 대체 대체 대체



필리핀 02-264-0882, 010-2255-0459